



Vol. 20  
2014. Summer

# 우진교통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 www.wjbus.co.kr |





photo by\_장범주 승무원

# 停留場風景

낭성면 호정리 조실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텅 빈 정류장에는 이정표를 알리는 불빛만 흔들린다.

저 멀리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리는  
 시내버스의 희미한 후미등이  
 기다리는 가족을 향해 빛나고 있다.

오늘도 마을과 마을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류장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woojin essay	버스정류장 풍경	02
	우진에세이 전달농사꾼이 배살나부를 만났습니다 / 대표 김재수	04
	초대글 2008년 10월 1일, 그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합니다 / 노부림인 참터유성규	06
	우진인터뷰 전체 직원중 3%, 우진 여성노동자	08
	아름다운 사람들 정만영 김주희 승무원	11
culture life	소통하며 화통하다 승객과 승무원의 짧은'talk'	12
	칭찬합시다 현장자치모임5조 계예철 승무원	14
	가족여행기 대전방과제항구, 용두해수욕장 / 5069 고인수 승무원	16
	건강코너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 충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박선미	18
	시내버스로 떠나는 작은여행 국립세종도서관을 다녀오다	20
	우진 가족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진교통승무원인 아빠께 / 정지현 (5070호 승무원 가족)	24
	현장문화 MTB동호회/세종도 라이딩을 마치고 강부구(자연인 MTB 회장/5065호 승무원)	26
	교통정보 공영버스단일요금제 시행안내 / 고객센터지원부	28
	Sketchbook	29
	노동에세이 우진교통노동조합 6기 집행부 인사드립니다	32
woojin life	노동조합소식	33
	틀린그림찾기	34
	우진의 희노애락	35

「우진교통, 2014년 여름호 통권 20호  
발행인 김재수  
편집장 장범주  
편집위원 김가승, 김경준, 김우규,  
김진상, 지화규  
발행처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384 가길4  
Tel. 043. 297. 4011  
http://www.wjbus.co.kr  
제작처 기획출판 예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31번길 3  
Tel. 043. 259. 0202

cover story  
부여 공남지 연꽃  
임근식 승무원

# 건달 농사꾼이 매실나무를 만났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경 초여름  
햇살 뜨거운 날 매실을 수확했습니다.

옥천 이월, 묘목시장에서 1년생 매실나무 60그루를 구입해서 심고 가꾼지 3년만의 첫 수확입니다. 비록 130킬로그램 밖에 되지 않지만 소중하고도 뿌듯한 결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내와 방학 중  
집에 내려온 딸아이와 함께

붉은 복숭아 십여개를 수확해서 어머니와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대전함과 성취감으로 행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3년 전 청주시내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땅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눈을 메꾸어 매실나무를 주로 심고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도 한 두 그루씩 심었습니다. 실은 매실나무가 가장 손이 덜 가고 고생도 덜 한다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덤으로 매화가 피면 달빛과 함께 매화향을 가슴에 담은 한량적 상상력도 결정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무를 심고 나니  
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름을 주고, 전지를 하고, 풀을 뽑고 베고, 나무를 괴롭히는 해충들 때문에 살충제도 뿌리고.....회사일은 밀리고 바쁜데 농사일은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와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풀과의 전쟁은 발일의 절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전혀 모르는 제게는 모든게 서투르고 어설프기만 해서 이리저리 농사를 그만둘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매화의 아름다움과 향을 누리는 유한계급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저의 게으름으로 인한 나무의 고통이 죄의식과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석음에 후회막급이었습니다.

이때 보다 못한 우진교통 구성원  
동지 몇 분이 팔을 걷어붙이며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대신가셔서 농사일도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아스팔트 농사꾼은 커녕 시작부터 잘못된 농사 몸치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매실을 수확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도와주었던 우진 동지 분들이 저를 보며 놀려댈니다.

“건달 농사꾼한테도 매실이 달렸네!”

“건달 농사꾼 때문에 매실나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참으로 고맙고 정겨운 덕담이었습니다. 저도 질세라 대꾸 한마디 하고 수확한 매실을 인원수대로 나눕니다. “자, 고생들 하셨으니 매실을 골고루 나누어 매실청을 만들어 먹읍시다. 여름에 운전하려면 힘드시텐데.....건달 매실청으로 건강 잘 지키세요!”

갓 딴 매실을 나누며  
상념에 젖어봅니다.

세상에는 건달 농사꾼 뿐 아니라 건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달 정치꾼! 건달 공무원! 백수건달! 정치건달! 생계형 건달인 건달사장! 등등 ‘그러면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대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진교통의 지나간 10년 세월은

한편의 대하드라마처럼

격동의 시간이었습니.

희망과 좌절이 교차되고 눈물과 웃음, 갈등과 단결, 역경과 극복이 뒤섞이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오늘의 우진교통이라는 노동공동체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건달 농사꾼 같은 대표의 역할보다 구성원들의 신뢰와 확신이 ‘우진’이라는 사회적 열매를 맺도록 만든 것입니다. 건달 농사꾼의 밭에서 주변 동지들의 도움으로 매실이 열리듯, 우진교통의 10년도 지도부 몇몇이 아닌 구성원동지들과 우진을 아껴주시는 주변의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긴 세월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면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우진은 보다 나은 미래의 설계를 작년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중했던 지난 10년의 세월에

업매이지 않고 향후 10년의 미래상을  
과감하게 선택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협동조합군의 형성, 구성원 실험사업, 제2차고지 조성 등등! 비록 이제야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지만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조율하고 결정하면서 일상의 소비와 복지를 함께 하는 우진의 미래를 창조한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울 여름은 비 내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드물고 무덥기만 합니다.

구성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진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건달 농사꾼이 가꾸고 담근 매실청을 글로써나마 올립니다. 얼음을 띄워 시원하게 잡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2014년 7월 말 매우 무더운 날  
고(故)이 내식 동지를 생각하며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대표 김재수





## 2008년 10월 1일. 그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합니다



유 성 규  
노무법인 참터

### 누구에게든 자기 인생에서 또렷이 기억되는 날들이 있다.

마음 속 깊이 각인되어서 몇 년이 흘렀음에도 어제처럼 또렷이 떠오르는 날들 말이다. 2008년 10월 1일은 나에게 그런 날이다. 아직도 그 날 느꼈던 기분 좋은 혼란스러움과 설렘을 잊을 수 없다.

### 어느 날 청주에 위치한 우진교통에서 연락이 왔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컨설팅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회사를 컨설팅한 경험은 있었지만, 회사 경영진이 직접 우리에게 컨설팅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 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는 우진교통은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므로 우리가 컨설팅을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했다.

오랜 고민 끝에 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의 말을 믿고 컨설팅을 맡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왠지 모를 찝찝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간 서울에서도 노동조합이 인수한 기업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터였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났다. 노동조합이 인수한 기업들은 그 출발은 거창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일반 기업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심지어, 조직 내부의 갈등과 경영 미숙으로 더 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안겨주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직은 책속에서만 가능한 것인가라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 2008년 10월 1일. 나는 컨설팅을 위해 우진교통을 처음 방문했다.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우진교통 앞마당은 행했다. 진짜로 행했는지 아니면 의구심과 걱정스러움이 그런 느낌을 연출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느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 좋은 혼란스러움과 설렘으로 바뀌었다.

###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을 만나서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었다.

당시 우진교통은 퇴직자들의 퇴직금 압류가 집행되었고, 그 결과로 임금체불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었다. 보유 현금이 7천만 원인 날도 있었다고 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업무가 마비되어야 정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가 마주한 노동자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경영진도 노동조합 간부들도 모두 웃고 있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이 같은 비상사국에 정년 연장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받겠다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움 속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 그 날 이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혼란스러움은 확신으로 설렘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확신과 희망. 우진교통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나에게 확신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나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우진교통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토론과 교육을 떠올리면 헛구역질까진 난다며 엄살을 떨던 선배 노동자, 임금 체불이 끝났다며 들뜬 목소리로 웃어대던 그 분(?), 우진교통의 지난 날을 얘기하며 자랑스러움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글썽거리던 젊은 노동자.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는 얼굴들이다.

### 그 때 느꼈던 확신과 희망은 노무사로서 나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안겨주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틀 속에서만 활동하던 내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 자활조직의 활동가들과 함께 하면서, 추상적인 구호와 담론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생산과 노동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실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우진교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이제 우진교통은 우진 노동자들의 것만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나처럼 우진교통을 보며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애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진 노동자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이다. 물론, 우진교통이 헤쳐 나가야 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불투명하기에 가능성은 더 크게 열려 있다. 우진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함께 세우고 지켜왔던 원칙들에 충실 한다면, 그 가능성은 어느새 현실이 되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 전체 직원 중 3% 우진 여성 노동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도 여러가지 생활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듯이 10년 세월을 바라보는 우진교통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혜가 모아져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호에는 우진교통에 입사한 시기는 다르지만 한 울타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성직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특히 전체 직원 중 3%정도 밖에 안되는 비율인데 어려움은 없는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 입사 시기는 다르지만 우진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텐데

**황순자** 2005년 용암동 차고지로 통합이전하면서부터 일했어요. 당시 어려운 상황에 우진에 입사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입사 이후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자식이 1남 4녀인데 애들 3명을 결혼시키게 되었지요. 승무원분들이 그때마다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금도 잘 챙겨 주셨고, 초창기 어려울 시기에는 승무원분들이 힘들 때면 우리도 이상하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른 아침, 식당 근무라 그런지 승무원분들 표정이나 분위기를 신경 쓰거든요.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서 밝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시고 음식이 더러 못마땅해도 아무 말 없이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더러 만나게 되면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대해주셔서 오히려 내가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미순** 자주관리기업 미래를 향한 도전 6년이라는 동영상을 보니까 차고지 사수할 때의 인타까웠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그 당시 우진을 지키려고 더운 땀방에서 대표님과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 108배를 하시고 조합원들도 더운 날씨에 함께 하는 모습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참석하고 싶었는데 우리(CCTV 모니터링)는 참석하라는 말을 안하더라고요. 모두 애쓰는데 우리는 조합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함께 하는 도움도 주지 못하는구나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나 고마웠던 사람이 있다면

**이효녀** 남자들이 많은 직장이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7년 정도를 일하다보니 이제는 모든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승무원분들의 잦은 장난에 놀란 적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대해주어서 가족같은 마음이 듭니다. 일하고 있으면 “내집 일이라니 생각하고 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씩 빼주는 작은 배려가 너무 고맙고 따스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아름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명자** 저는 직원분들이 식사하시고 난 이후 식판 모아진 것을 가져다 줄 때 은근히 따스하고 좋았어요.

**김운선** 회사에서의 저의 존재감이 그닥 없었는데 자주관리교실 학생들 인터뷰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고미순** 고마웠던 기억은 처음 입사 했을 때 오랜만의 직장생활이었는데 첫 만남에서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모두 따스하게 대해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종래** 작년 노동조합 체육대회 때 나쳤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셔서 민망하기도 했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버스왔는데 승무원분께서 괜찮냐고 물어봐주셨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 나의 건강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안정적인 장수근무를 위해 내가 지킨다!!!나만의 건강비법이 있다면?

**이항림** 무더운 여름, 여러 보양식도 좋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닭곰탕같은 것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저만의 건강비법은 해독주스를 1년 이상 먹고 있어요. 당근,양배추,토마토,사과 등을 데쳐서 갈아먹고 있지요. 피부건강, 항암효과 등에 좋다고 하네요.

**황순자** 산을 많이 다니니까 산약초를 많이 먹고 있다. 그리고 삼립육을 더불어 하는 셈이다. 그러니 항상 활력적인 것 같다. 피부탄력도 짱이다!

**오영숙** 여성전용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성전용프로그램인데 체력도 좋아졌고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년퇴직하려면 건강 챙겨야죠!!

**이종래** 특별히 운동하는 것은 없고, 보양식도 즐겨 먹는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해서그런지 마음이 편안하고 사는 것에는 감사하는 맘이 생깁니다. 이것도 건강비결이구나 싶네요. 교도소 제조자들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저도 여성전용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해독주스를 마시고, 아침밥은 조금먹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어요.

**김운선** 특별히 운동이나 건강비법은 없어요. 그냥 숨쉬기운동 정도^^. 회사에서 먹는 점심밥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유일한 건강비법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오래 꼭 꼭 씹어 먹고 천천히 충분한 시간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나만의 건강비법이에요.

**고미순** 출퇴근시 30분씩 걸어나가는 것이고 무슨 음식이든 잘 먹는 것이 건강비법 아닐까요?

**변명자** 시중에서 파는 피로회복제를 더러 먹는데 나와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침을 잘 먹는 편이고 점심은 국수 정도, 저녁은 안 먹고 있어요. 보기에다 건강해보이죠?

**이효녀** 직접 발효시킨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6개월 정도 먹고 있는데 변비에방도 되고 속도 편하고 가스 인차고, 아무튼 움직이는

게 가벼워졌어요.

**지희구**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저 바빠도 음악 듣고 책 읽는 것 밖에 없네요.

## 아내이자 엄마이자 우진교통 구성원인 당신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오영숙** 나쁜 이야기는 빨리 잊으려 한다.

**이종래** 집안일을 몰아서 한다.

**이항림** 드라마 몰아서 본다.

**황순자** 나쁜 이야기는 한끼로 듣고 흘려버리는게 속 편하고 정신건강에 좋다

## 회사근무를 마치고 하는 활동이 있나요?

**변명자** 가끔씩 친구들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것 밖에.....

**이종래** 종교활동을 주로 한다.

**황순자** 산약초 캐는 재미로 산이나 들로 여기저기 다닌다. 1년에 거의 10개월정도는 산이나 들에서 지내는 것 같다.

**이효녀** 가족들을 위해 식사준비나 집안일을 주로 한다.

**김도연,김운선** 아이가 있어서 퇴근하면 다른 엄마들처럼 육아에 전념한다.

## 여가시간조차도 자신을 위한 것 보다는 가족을 위한 영역의 일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나만을 위한 휴가가 주어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대다수** 나만의 여행!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행)

**이효녀** 소리 지르고 노래도 불러보고 싶고 국악이나 두드릴 수 있는 드럼 같은 악기나 기타도 배우고 싶다.

**이종래** 개인적으로 난타를 하고 싶다. 신나게 치면서 스트레스 풀고 드럼 치는 것 보다는 단순해서 좋을 것 같다.

## 회사에 바라는 점 또는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효녀** 쓰레기분리수거는 전체가 애써야할일이다.

**이항림** 음식물을 흘린 경우 치워졌으면 한다. 나







## 정민영 + 김주희 승무원

한 달 교육 후 고정승무원이 된다?!  
입사 후 2~3년은 기다려야 고정승무원이 되는 요즘 예비승무원이나 신입승무원들에게는  
꿈같은 상상일까 라면 과한 표현일까요?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 불과 6년 전 우진교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정민영 승무원과 김주희 승무원  
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운수업체  
의 동료로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그 때 서로에 대한 좋  
은 기억 때문인지 우진에서의 두 번째 만남은 낯설고 부담  
스러움이 아닌 반갑고 편안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가식적이지 않고 성실함과 이해심이 많은  
정민영 승무원.

책임감이 강하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주위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번 더 생각하는 김주희 승무원. 이  
렇게 두분의 원만한 성격때문인지 두 분을 싫어하는 사람  
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영 승무원은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  
르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골에 홀로계신 어머니 농  
사일 거들며 드리랴, 자주관리교실 5기생으로 열심히 공부  
하랴, 거기에 반장으로서의 책임감 또한 있기에 힘들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고있답니다. 김주희 승무원도 한쪽 무릎  
관절이 좋지않아 좋아했던 축구도 포기하고 무릎에 무리  
가 되지 않는 선에서 평지나 낮은 산에서 삼림욕을 즐기는

수준의 운동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전처럼 짝궁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처음 그때의 마음에서 변함없다고 합니  
다. 그리고 정민영승무원은 역사기행 때 김주희 승무원의  
어머님이 빵을 좋아한다는 걸 잊지않고 있다가 '이성당  
빵'을 챙겨주는 등 서로간의 알콩달콩 고마운 마음이 오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짝궁의 가족까지 생각해주는  
마음이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나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란 질문  
에 김주희 승무원은 말합니다.

차량의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해결하려 노력  
하고 늦은 밤 차량의 고장으로 다음날 정상적인 운행을 못  
할시 대처할 차량을 준비해 아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  
량을 구해 준비해놓고, 문자로 차량위치나 정보를 알려주  
고 퇴근한다고 합니다. 저녁늦게까지 일하고 귀찮을만도  
할텐데 네가 할일 내가 할일 구분하거나 따지지 않고 서  
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참 좋아보입니다.

이마음 변치않고 서로 아무일 없이 건강하게 정년하는  
그 날까지 좋은 짝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_ 김진상

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순간 더 더러워 지는 것이다.

**고미순** 차고지 투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업무내용 특성상 계기  
가 없었던 것을 생각해보니 가능하다면 함께할 수 있는 프  
로그래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이번에는 즉문즉답시간입니다. 나에게 우진교통이란?**

**황순자** 내 집처럼 아끼고 챙기고 싶은 곳.

**이효녀**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곳.

**이향림** 밥줄!

**오영숙** 내 몸의 일부.

**이종래** 인생의 전환점. 이런 직장을 처음 다니다보니 남자들의 일  
면을 보게 되었고 남편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도연** 행운이다. 입사해보니 너무 따스한 분들이 많았어요.

**김운선** 배움의 장. 차에 대해 전혀 무지했는데 이제는 부품에 대  
해 많이 알게 되었다.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곳.

**고미순** 굉장히 감사한 곳,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좋은 직장.

**변명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여성분들을 위한 자유토크시간!!**

**이종래**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입사했는데 회사 동영상 보면서 어  
려운 과정을 거치며 일어난 회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회사에 대해 각자가 모두 주인의식이 있기에 자세가 다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버스가 제일 깨끗하고  
친절하다고 느껴진다.

**이효녀** 버스를 타보면 복장이 깨끗하니까 활력적이고 생기있어  
보인다. 가끔 버스를 타 보면 타 버스 보다 우리 차가 달라  
보인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 입사했을 때는  
조금 거칠었는데 지금은 안정이 돼서 그런지 대화하는 모  
습도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 졌다.

**김운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당시에는 젊으셨는데 2~3  
년 지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보이지만 동영  
상에 있는 웃는 모습보다 지금의 웃는 모습이 조금 다르  
다. 지금이 더 편안해 보이고 여유있는 웃음인 것 같다.

**황순자** 차고지투쟁 때 임금 체불될 때 우리는 임금을 쫓다. 그때  
마음이 엄청 잔했다. 그때는 아침 근무시 밥먹을 때도 편  
안한 적이 없었다.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다.

**오영숙** 2004년 파업투쟁, 2008년 압류시기, 차고지 투쟁 등이  
기억에 남는다.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차주관리워크샵'  
교육이었다.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생각  
을 많이 하고 있고 그때의 교육내용을 잊지 않고 있다. 지  
금은 안정이 되어 너무 좋다.

여성 직원분들이 전체 직원 중에서 소수이다 보니 존중과 배려가 소  
홀하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에서 근무하  
는 시간이 단시간인 편인데 오늘 인터뷰를 하고보니 회사에 대한 생  
각의 폭이 아주 넓고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직원분들이 아름  
다운 마음으로 아끼는 회사 우진교통! 그 저력의 밑바탕에 바로 이 분  
들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승객과 승무원의 짧은Talk

취재 \_ 김우규

와~여름이다.

여름에는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떠나고픈 마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진교통 구성원들은 어디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내버스에서 청주시민의 발이 되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통합청주시와 시내버스>에 대하여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2014년 7월 1일 청주와 청원군이 드디어 통합을 이루어 4개(상당구, 흥덕구, 서원구, 청원구)의 구로 이루어진 통합 청주시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 후 시내버스가 변화한 점과 앞으로 기대하는 변화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면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승객** 청주청원이 통합되어 버스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좌석버스로 한정되어 있어 조치원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 비해 시내버스가 너무 적어져서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치원방향 버스는 항상 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들로 붐벼서 문도 간신히 닫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은 조치원을 오고 가는 시내버스는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비좁아져서 학생들 틈에 치이는 노인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 서비스개선이라면 버스 수를 유동적으로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객** 버스 안내방송과 안내전광판을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방송과 안내전광판만 믿고 버스에서 하차하면 다른 승강장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승객** 꽤 오랜 기간 동안 버스를 이용하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이 되

고 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이지만 통합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류장마다 버스 진입 정보를 알려주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용률이 높은 청주버스 어플리케이션도 사람들은 꽤 의지를 하는 듯 싶는데요, 앱과 기계에서는 버스가 진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아침 출근길이신 분들과 학교등교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오류가 없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입하고 있다는 버스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진다던가 계속 진입 중이라고만 떠있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나 보니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된다면 사람들도 더욱 믿고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원군의 낙후되었던 시내버스 이용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 취재에 응해주신 승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취재에 협조해주신 분 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승객** 청원군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너무 빠른 시간에 끊겨서 집으로 갈 때 비싼 택시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을 이용 하다보면 그 돈이 너무 커집니다. 청원군도 지금은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민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객**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주위 친구들 중에서 청원군에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까지 오는데 먼 거리라는 불편함도 있지만 배일 이용하는 버스비용으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청원군으로 넘어가는데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는 추가요금이 사실 몇 일 몇 주로 따져보면 꽤 되는 돈입니다. 청주청원이 통합 전에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제 친구 뿐만 아니라 청원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청주시에 바라는 시내버스의 개선점과 향후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객** 아까 말을 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립니다. 어느 방향의 시내버스도 그 시간 때는 복잡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약간 적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유연하게 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객** 버스에서 다음 승강장은 육거리라고 나왔지만 계속 가다보니 육거리가 아니라 육거리시장(문평동 방면)에서 멈춘 것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육거리로 가는 방향의 버스들이 모두 육거리와 육거리시장 승강장을 구분이 안가게 다 육거리로 방송하고 나타냅니다. 심지어 버스 승강장 전자안내표시에도 구별이 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승객** 제가 보기에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기사님들의 승객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회사 버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진교통 버스를 타면 모두 제 아빠인 것 같이 느껴져 더 열심히 인사를 하고 타는데요,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며 인사해 주시는 기사님들도 계시지만 가끔 제 인사를 무시하시고 거스름돈을 받아야 할 땐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하신 기사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또한 빨간불에도 신경하나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고 급하게 운행하다 보니 사람이 많아 서서 가는 경우에 승객들은 바들거리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우선은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맺은 결과는 승객과 기사님들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친절을 중요시 여겨 승객과 기사 사이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여유있는 운전으로 기사분과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승객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두 똑같은 순 없겠지만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시내버스승무원의 책임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유 있는 운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의 시내버스 운행은 통합청주시가 된 이상 전반적인 사항을 신경 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버스! 친절한 승무원! 웃음 가득한 승객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귀기울이며 존중할 줄 아는



경륜

취재 \_ 김경준

## 현장자치모임 5조 계예철 승무원을 칭찬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것 같지만 활력적이고 단합 잘되는 현장자치모임을 말하라면 단연 떠오르는 현장자치모임은 5조다.  
최초로 200일 무사고를 달성했고,  
100일 무사고 3번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모임.  
그 출중한 경력의 배경에는 조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한 몫 하지만  
이 적극적인 모습을 단합의 울타리로 단단히 하는 데는 조장, 총무의 역할이 크다.  
이번 호의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바로 이 5조의 총무를 맡았던 「계예철 승무원」이다.

우리 모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받고 존경하는  
선배배동료가 되길 바라며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 칭찬받는  
그날을 만들어 가는 코너입니다.



선배들의 경험에 따른 조언을 귀담아듣고 후배들의 새로운 제안이 합리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추천인들의 공통지점이 있다.

때로는 총돌로 이어져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선배들과 큰 소리로 다툼 적도 있고 그 여파로 꽤 오랜 시간 힘들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장자치모임 5조가 업그레이드되는 전환점에는 바로 계예철 총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듯하다. 선배들도 후배들의 발언에 귀기울이며 존중할 줄 아는 경륜을 오히려 배워가고 있는 것 같다.

“총무를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자주관리교실에서 직무자치에 대해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더러는 선배님들이 보기에 급하거나 경솔해보이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조원으로서의 자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에만 매몰되어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단점도 보이지 않을까요.”

느린 말투에 전혀 뜻밖의 사투리가 있는 계예철 승무원과 말을하다 보면 은근히 사투리에 빠져드는 걸 느낀다. 그리고 한 마디마디 진지함이 묻어나는 그의 말들을 듣다보니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진교통의 직무자치는 가장 창의적인 조직운영틀이다. 평가를 게을리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후배들의 모습, 계예철승무원의 또다른 모습들이다. 기대된다. 많이 많이 칭찬해주자

# 계예철





## 대천방파제 항구 용두해수욕장

고인수 / 5069호 승무원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인 대천으로 출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일까?

운전을 하는데 절로 힘이 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송에서 ~ 공주 ~ 정안으로,

정안에서 논산간 고속도로 서산으로 ~ 서산 ~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여행 목적지인 대천 방파제 항구에 도착하였다



5월22일 맑음

햇빛이 따사롭게 비추는 화창한 날씨의 오늘,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시작한다. 그동안 서로가 자기 일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어렵게 가족여행을 하게 되었다. 수차례 여행을 다녔지만 가족여행은 언제나 설레이고 두근거린다.

미리 대여한 회사의 미니 버스를 타고 가족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인 대천으로 출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일까? 운전을 하는데 절로 힘이 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송에서 ~ 공주 ~ 정안으로, 정안에서 논산간 고속도로 서산으로 ~ 서산 ~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여행 목적지인 대천 방파제 항구에 도착하였다.

처음 출발 할 때의 모습보다는 지친 듯 보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출출한 배를 먼저 채우려고 근처 가까운 횡집에 들어가 우리는 우럭, 광어, 놀래미, 멍게 등... 푸짐한 모듬회 한상을 배불리 먹었다. 맛있게 먹는 모습에 먹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부른다. 참 잘도 먹는다. 횡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대천 방파제에서 바람 맞으며 바다 구경도 하고 수산물도 구경

“

용두해수욕장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고 솔밭과  
백사장이 같이 있는 곳이라  
가족들이 쉬기에는 좋다.  
넓은 백사장에서  
맛소금과 호미로  
조개잡이도 하고 준비한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

도 하면서 가족들과 못 나눈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오후를 즐겼다.

다음으로 <용두해수욕장>을 목적지로 잡고 출발했다. 용두해수욕장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고 솔밭과 백사장이 같이 있는 곳이라 가족들이 쉬기에는 좋다. 넓은 백사장에서 맛소금과 호미로 조개잡이도 하고 준비한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하지만 나에겐 고생 아닌 고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술이라면 지고는 못가도 마시고는 가는 주량인데 한잔 술도 못하는 상황이라 즐거운 자리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다음부터 운전은 절대 안한다.)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에 그래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변 산책을 하며 훌쩍 커버린 자식들을 보며 옛 추억을 되살려 보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청양지나 고추 출렁다리를 구경하면서 청주로 오는데 가는 길은 구불구불 힘들었지만 오는 길목은 순탄했다.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으로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다.

즐거운 하루였다.



##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박선미 교수  
충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췌장암은 전체 암 중에서 약 2% 정도로 드물지만, 발생하면 대부분 사망하는 무서운 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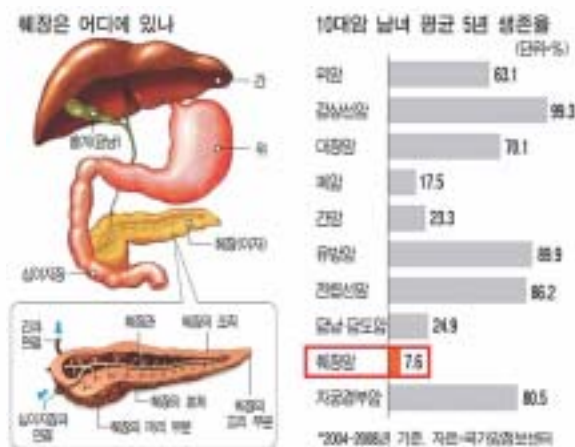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 '조기에 췌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췌장암의 발생과정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관여하므로 한, 두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췌장암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또한 췌장은 몸 속 깊이 있는 장기로 접근이 어렵고, 암이 발생하면 빨리 진행되어 주변 장기로 퍼지므로 아직까지 검강 검진을 해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면서 건강 검진을 꾸준히 했지만 말기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그러나 췌장암의 위험 요소를 피하고, 특히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정기 검진을 하면 췌장암의 위험성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

췌장암의 위험인자로서는 고령, 흡연, 비만, 당뇨병 및 만성 췌장염 등이 있다.

또한 가족성 췌장암, 가족성 암증후군, 유전성 췌장염, 등의 유전적 요인도 주요 위험 인자이다. 췌장암은 고령에

췌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체중 감소나 복부 통증 등은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에 가서야 나타나므로 황달을 제외하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으로 조기에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췌장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하고 금연하며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이다.



서 생기는 병으로 30세 이전에는 극히 드물고, 5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65-7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췌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흡연도 췌장암의 위험요소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정도로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비만도 췌장암의 위험요소이다. 열량과 지방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 과일, 채소, 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으로 정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뇨병과 췌장암의 관계는 조금 복잡하다.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하면 당뇨병이 생기므로 당뇨병이 생길 위험요인이 없는 사람이 최근 2년 이내에 당뇨병이 생겼다면 췌장암이 생겼다는 좋은 표지자로 활용할 수 있다.

당뇨병은 췌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이다. 즉, 당뇨병은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인면서 췌장암의 표지자이다.

또한 만성 췌장염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10배 정도로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한편, 유전 요인도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 전체 췌장암의 약 1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직계 가족 중 1명이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병했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가족성 췌장암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때 직계 가족들은 일촌 관계에 있는 췌장암 환자 수가 많을수록, 흡연을 할수록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췌장암 환자가 50세 이후에 발생한 한명의 췌장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고 한다면 췌장암의 위험성이 일반인과 동일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성 암 증후군은 암을 집중적으로 유발하는 유전자 이상으로 가족 중에 유방암, 대장암 등의 다른 종양과 함께 췌장암의 발생이 증가한다. 유전성 췌장염은 유전자 이상으로 췌장염이 발생하는 병으로 젊은 나이에 만성 췌장염이 되고 이어서 췌장암이 생기는데, 70세까지 약 40%에서 췌장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만성 췌장염보다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다.

아직까지 췌장암을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췌장암의 고위험군인 만성 췌장염, 2년 이내에 발생하고 가족력이 없으며 50세 이후에 발생한 당뇨병,

유전성 췌장염 환자, 가족성 췌장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부모 혹은 자식은 췌장암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별 검사 방법은 복부 CT, 혹은 초음파 내시경, 및 혈청 CA19-9를 매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췌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체중 감소나 복부 통증 등은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에 가서야 나타나므로 황달을 제외하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으로 조기에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췌장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하고 금연하며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이다. 또한 췌장암의 고 위험군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하고 위험요소가 없는 젊은 사람이 췌장암을 염려해서 조기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췌장암의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올 때까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곳, 국립세종도서관을 다녀오다

참으로 더운 날씨입니다.

간간히 내리는 소낙비는 달아오른 아스팔트열로 생긴 습한 더위로 변하여 불과지수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

취재, 사진 김경준

01



- 01 국립세종도서관
- 02 오송역 정류장
- 03 국립세종도서관 전경
- 04 세종청사 앞 정류장

02



세종시 여행의 출발은 오송역으로 했습니다.

청주시내에서 10여분 미다 운행하는 조치원방면 국책기관을(511번) 운행하는 입석버스를 타면 중간 도착지인 오송역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오송역에서는 청주공항에서 오송역을 경유하여 세종시로(751번) 가는 것과, 대전관할에서 운행 중인 오송역과 세종시를(990번) 운행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차량 운행의 간격이 짧으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종시를 가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운행하는 751번, 12:50분 버스타고 쌍쌍~~

헐~~나홀로 승객 -.- ::

아직까지는 세종시의 신도시 건설이 진행 중이라 버스승객은 많지 않은가 봅니다. (행정중심복합신도시이며 세종시 남쪽에 자리하고, 세종특별시청은 조치원에 있습니다. ^^)

버스가 오송역을 지나자마자 마음까지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지워버리는 미호천의 시원함과 먼 산까지 보이는 넓은 시야들..

오송역과 세종시를 이어주는 버스 운행은, 가운데 차선을 이용하는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주변을 감상하려니, 현재 진행형인 신도시 인지라 개발의 움직임이 분주하네요.

04



10여분 지나니 정부종합청사, 이곳 승강장에서 하차를 합니다. 이곳에는 세종시의 변화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가 있습니다. 밀마루란 '낮은 산등성'이라는 한글이름이라고 하네요, 이쁘다.^^

아래에서 보면 작달만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높이가 42m의 누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지 이쁜 홍보 가이드분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전망대 상부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아파트로 치면 9층 높이가 되는지 1과 9의 버튼만 있네요. 외벽이 유리로 된 전망대라 올라가면서 다리에 짜릿함이 전해 옵니다. 또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느낌이 나는데, 설게 자체가 지진이나 바람에 움직이게끔 되어있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적응하면 잔잔한 파도에 배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전망대에 도착하니 가족단위로 온 분들이 많네요.

낮은 산등성이에 세워진 전망대 에서 바라보는 세종시의 풍경이 새롭습니다. 청사를 바라보는 뒤편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고 전면으로는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청사 뒤로는 호수공원과 국립도서관까지 보이네요. 건물들이 세워져 올라가는 세종청사를 감상하고 있노라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사건물이 한채 한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을 공중의 통로로 이어서 건축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보면 웅이 꿈틀거리리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또 한 건물의 시작점과 끝지점의 길이가 3.5km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공공건물이며, 시작점이 되는 곳에는 목마른 용을 위한(?) 호수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하는 밀마루 전망대를 뒤로 하고 국립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청사 건물이 길가 위의 통로로 이어져 가는 모습도 보고, 차량 신호등에 커져서 “버스”모양의 신호등도 어린 친구들은 신기하게 바라보네요.

05



06

10



- 05 국립세종도서관 내부
- 06 밀마루 전망대
- 07 국립세종도서관 내부
- 08 책꽂이 하단부에 밝은 빛을 내어 손쉽게 책을 찾을 수 있다
- 09 중요무형문화재인 부채 작품
- 10 휴대폰 사용을 위한 전화부스
- 11 에그체어
- 12 장애인 편의시설

세종시에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넓은 호수공원을 품은, 멀리서 보아도 멋지게 생긴 건물... 중간 부분에서 끝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한옥의 처마끝 모양 같기도 하고, 두꺼운 책을 넘겨 엮어 놓은 듯하기도 한 참 멋진 건물, 세종시 국립도서관입니다.

2013년 12월 12일에 개관을 했고,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채광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대리석 바닥으로 인하여 곳곳을 비추어주는 것 같습니다. 높고 넓은라운지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첫인상이 멋지게 다가오네요.

이곳은 지하 1층부터 4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창밖으로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방학을 이용하여 한번쯤 외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층과 2층은 도서열람실로 되어 있으며 3층은 사무실 4층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의 특징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위한 장소가 있고, 주기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2층에는 멀티 미디어 열람실과 영화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층 열람실 책꽂이 하단부에는 밝은 빛을 내어 손쉽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배려가 고맙게 다가오네요.

또한 휴대폰 사용을 위한 빈티지한 빨간 전화부스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보이는 2층의 자리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부채 작품이 있는 맞은편 장소는 최고의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포근히 안아주는 기분이 드는 에그체어가 있는 곳입니다.

기다리다 찾아온 기회에 에그체어에 몸을 기대 봅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신도시 세종! 아직은 부족한 것, 미흡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건물과 사람들 간의情이 깃들여 가는 곳 !

**세종시 국립도서관, 국내 최초의 정책 도서관이면서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책 대여는 3권씩 2주간 가능하며, 세종시 주민과 대전까지 가능하고 이곳의 운영시간은 (월~일,09:00~18:00) 휴관일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요일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더 높게 비상하는 청주의 미래를 꿈꾸며가까운 거리에서 개발중에 있는 세종시의 언저리를 둘러보는 여행, 시내버스로 가능합니다.

07



08



09



11



12





### 자랑스러운 우진교통 승무원인 아빠께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의 이쁜 큰 딸 지현이에요.

오랜만에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많은 기억들이 스쳐지나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항상 엄마와 두 딸에게 큰 지붕과 기둥같은 존재이고 밖에서는 우진교통 승무원으로 청주 곳곳을 누비며 우리 가족이 아닌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 아빠, 그 때 기억나요?

아빠가 우진교통에 들어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직장을 잡지 못하셨을때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빠, 저는 단 한번도 아빠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철없게도 아빠가 매일 집에 있어서 좋았고 아빠가 직장생활을 하며 함께 하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즐거웠어요. 아빠께서 우진교통에 입사하시고 나서 더 활력을 되찾으시고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서 건강도 되찾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 아빠, 저는 항상 우리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늘 가까운 곳에서 서로 믿어주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두 딸은 아빠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아들같은 큰 딸이 아빠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 최근 들어서 도전한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저에게 다 잘 될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의 말씀 덕분에 제가 또 한번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대에 부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게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아빠가 운전하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걱정부터 되지만 베스트 드라이버 우리 정기사님! 안전운전 하실거라 믿어요~!

### 아빠, 아빠, 아빠라는 말은 언제 불러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빠 딸이어서 참 행복해요.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사랑해요, 아빠!

2014. 7. 18

사랑하는 아빠께 이쁜 큰딸 드림



정지현 \_ 5070호 정완태 승무원 가족



모든 것은 늘 가까운 곳에서  
서로 믿어주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 MTB동호회 '제주도 라이딩'을 마치고

드디어 5월 8일 지난 1년여간 준비했던  
제주도 일주 라이딩 출발일  
기대만 설렘만으로 잔뜩 들뜬 마음만큼 날씨 또한 환영하는 듯  
5월 그 자체의 영광스런 날이었다.  
장흥 노력항까지 380km 꽤 먼 거리였지만  
모두들 행복한 표정 일색였다.

강무구 / 5065호 승무원 / 자연인 MTB 회장

다음 날 제주도행 배를 타기위해 노력항 근방에 민박집을 얻었고 인심좋은 민박집 주인 어부 덕분에 감성돔과 갑오징어로 푸짐한 저녁상을 차리게 되었다.

세월호 여파로 여객항은 안전, 보안이 꽤 강화되었고 특히 자동차는 4인 1조로 팀이 되어 주차되자마자 한 바퀴씩 고박했던 행동들이 꽤 낯설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건데...



6명이 라이딩을 하고 한 명은 뒤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팀원들을 보호하며 달린다. 이십여년 만에 다시 찾은 제주도는 환상 그 자체였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진파랑이었고 끝없이 이어진 에메랄드빛 바닷가는 미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환상적인 정경이었다. 특히 월정해수욕장 뱃사장에서 탔던 기억은 제주도에서의 추억 중 단연 으뜸이었다. 이십 여 년 전 기억하고 있던 용두암은 세월 탓인지 감동은 많이 무디게 다가왔다.

제주시에서 위치한 동문시장에서 구입한 싱싱한 문어와 전복과 두 마리 닭으로 조합된 백숙은 우리들의 여정을 무사히 할 수 있는 든든한 보양식으로 너무 충분했고 맛과 영양 또한 아주 일품이었다.

세찬 바람이 제주도 전역을 감싸는 이틀째 아침, 다들 어제의 피로와 숙취로 힘들만도 한데 단 한 명도 퍼지는 사람 없이 제주도 바람과 맞서며 이틀째 여정을 시작했다.



5월이라 반팔, 반바지는 좀 무리일 듯 했는데 의외로 육지에선 느낄 수 없었던 포근한 바람이었다. 순풍에 돛단 듯 바람을 타며 앞으로 전진, 전진하며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내달렸다. 어느 인심좋은 아저씨의 소개로 한림향 중앙시장 상가 안쪽에 위치한 조그만 식당에서 제주도 별미인 고기국수로 점심을 해결했다. 비주일은 그저 그랬는데 맛은 상상이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했구나 싶었다. 배도 채웠겠다, 해안 도로 구석구석 그네들의 삶의 현장을 찾았다. 그곳을 누비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해변가 근처마다 물걸하는 해녀들의 고단함은 마음 한 구석을 애잔하게 했다. 그분들의 삶의 현장을 뒤로 한 채 달리고 달렸다. 중간 지점인 신창풍력발전단지 그 큰 풍차가 아주 세차고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과 웅장함에 넋을 잃고 있었을 무렵 우리들은 앞으로 닥칠 큰 위기를 아무도 몰랐다.



이제까진 바람이 뒤에서 밀어줘서 편하게 왔지만 지금부터 앞에서 바람이 부는 맞바람이었다.

한참을 갔지만 바람의 기세는 더 당당해졌고 우리들은 다들 만수무답이 되고 얼굴엔 힘들 그 자체였다. 힘들게 업힐해서 날망까지 올랐지만 이놈의 세찬바람은 우리들의 다운을 허락하지 않았다. 업힐할 때 만큼은 아니지만 내리막에서 페달질을 안 하면 자전거가 멈췄다. 다섯시간 넘게 맞바람과 사투하며 도착한 두 번째 펜션 팡송예레. 팡송은 불어로 펜션이란 뜻. 방안 전면유리에서 보이는 바닷가 전경은 명품 중의 명품이었다. 하루의 피로를 천지연 폭포의 세찬 물줄기로 씻어내고 마지막 라이딩을 위해 고단한 몸을 쉬게 했다.

어제보다 바람은 잦아 들었지만 하



늘에서 뭘가 올 듯 꾸물거렸다. 대상 주상절리 가기 전 약간의 빗방울이 뿌렸지만 우리의 열정을 막진 못했다.

정말 신기했고 독특했던 암석, 자연의 위대함에 고개 숙여진다. 자동차와 인차 만남 장소인 쇠소깍에서 아까 펑크난 용현형 자전거를 손본다. 다소 한가롭게 쇠소깍의 풍경을 사진기에 담았다.

다시 출발하며 짜장면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올레길 싱글길(자전거가 탈 수 있는 등산로)을 타며 도로만 달리며 느꼈던 단조로움을 단숨에 날려 버린다. 오후 6시경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인 성산인출봉이 저 멀리서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가슴이 뭉클했다. 삼일 동안 동거동락 함께 했던 우리 자연인 형, 동생들 생각에 왠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났다. 누가 볼까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감동을 온 몸으로 느끼며 드디어 성산인출봉에 도착하며 우리의 모든 인정을 무사히 마쳤다.

다들 표현은 안 했지만 그 표정만으로 충분히 감동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삼 일 동안 240km! 그건 아마 완주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연인 형, 동생들과 함께여서 더 값진 것이 아닌가 싶다. 범주형, 성렬형, 용현형, 우용형, 재원형, 상준이 내 추억의 중요한 주인공들!!

사랑합니다!!

이상, 자연인

MTB 회장

강무구였습니다.





# 공영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안내

청주와 청원이 통합과 함께 변경되는  
청주시내버스와 청원 공영버스의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제공 \_ 고객센터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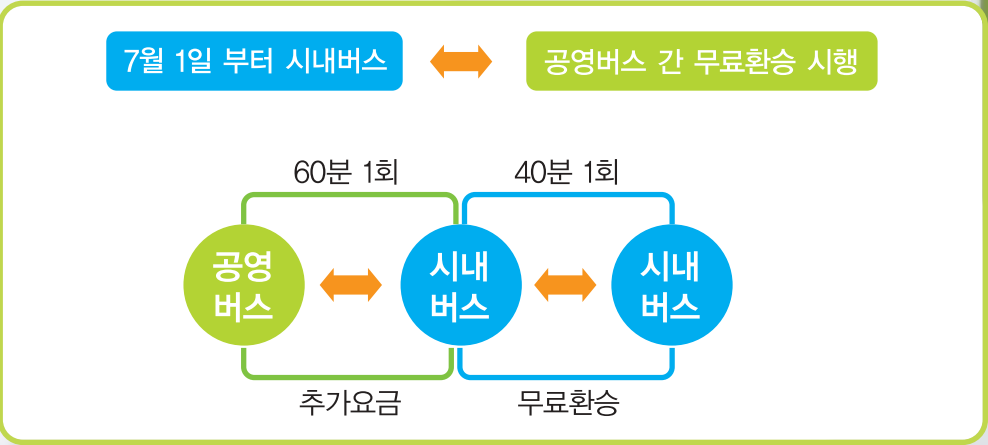
❖ 청원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요금이 단일요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 : 7월 1일 (화) 부터
- 대 상 : 청원지역 공영버스(두자리 노선번호)

구 분	변경전 (구간요금)	변경후 (단일요금)	비 고
일 반	100~500원	500	
중고생	100~450원	400	
초등생	50~250원	200	

- 예외지역 : 통합청주시외구간(조차원/부강/신탄진)은 시내버스 요금적용
- 단, 현도 ↔ 부강, 현도 ↔ 신탄진은 공영버스 요금 적용
- 공영버스 ↔ 시내버스간 환승시행으로 공영버스 요금 카드할인 없음.

❖ 공영버스와 시내버스간 무료환승 시행



- 현금이용객은 무료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 시내버스 무료환승 10분연장 : 기존 30분 → 40분(5월시행)
- 무료환승은 반드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인식시킨 후 하차하셔야 합니다.
- 60분 이내 공영버스에서 시내버스 환승시 시내버스 요금에서 공영버스 요금을 제외한 추가요금만 징수됩니다.
- 60분 이내 시내버스에서 공영버스 환승시는 요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 무료환승은 교통카드 1매당 1인만 가능합니다.



## Woojin Sketchbook

사진으로 보는 우진의 이모저모



14.04.10 새내근로복지기금교육



14.04.10 새내근로복지기금교육



14.04.10 자주관리위원 산당산성 산행



14.04.10 자주관리위원 산당산성 산행



14.04.10 자주관리위원 산당산성 산행



14.04.11 현장자치모임



14.04.11 현장자치모임



14.04.13 제5기 자주관리교실 덕유산 야간산행



14.04.13 제5기 자주관리교실 덕유산 야간산행



14.04.29 노동조합 임원후보 설명회



14.04.29 노동조합 임원후보 설명회



14.04.30 노동조합 임원 선거





14.05.12 자주관리교실 학생 및 졸업생 역사문화탐방 (보은 삼년산성과 선병국 고택)



14.05.12 자주관리교실 학생 및 졸업생 역사문화탐방 (보은 삼년산성과 선병국 고택)



14.05.15 경영실명회 표창장 시상식 (조인동 승무원)



14.05.27 경영관리팀과 노동조합 임원 역사문화탐방



14.05.28 사설관리부 직무항상교육



14.05.28 민방위소집 훈련



14.05.28 민방위소집 훈련



14.05.15 경영실명회 표창장 시상식 (오영숙, 강희우 승무원)



14.05.23 중학생 직업체험활동



14.05.23 중학생 직업체험활동



14.05.28 사설관리부 직무항상교육



14.06.12 제5기 자주관리교실 변산 역사기행



14.05.24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님 (기업과 경영학의 만남)



14.05.27 경영관리팀과 노동조합 임원 역사문화탐방



14.05.24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님 (기업과 경영학의 만남)



14.06.12 제5기 자주관리교실 변산 역사기행



14.06.12 제5기 자주관리교실 변산 역사기행



14.06.18 오마이뉴스 김재수대표, 이철수 판화가 인터뷰



14.06.18 오마이뉴스 김재수대표, 이철수 판화가 인터뷰



14.06.19 경영실명회 김병우 교육감 당선인 감사인사



14.05.28 구내식당 위생점검



●● 함께하는 노동의 소리 ●● 노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연대의식, 건강한 노동문화, 삶을 위해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 우진교통노동조합 6기 집행부 인사드립니다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의 지난 6년이란 시간을 생각해 보니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디하나 특출난 것이 없는데 지금의 시간까지 온 것은 이 모든 것이 동지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동안 격려의 마음으로 도와주신 동지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는 위원장으로서 6기 집행부와 함께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희 6기 집행부는 7월1일부터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을 진행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도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잔별금제판에 대한 책임감이 6기 집행부가 안고가는 큰 업무입니다. 책임있는 매듭을 짓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의 활성화 방안도 더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은 이미 추진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구성된 상집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범을 창출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지 여러분 모두를 소중히 생각하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초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노력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동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자주관리기업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만들어왔듯이 앞으로도 모두 합심 단결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07. 04.

우진교통6기노동조합 위원장 **홍 순 국**

노동조합의 교육 · 행사 / 연대사업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운수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교자 합니다.

노동조합소식 ●●

## 제4차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운영위원 및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 (14,04,23)

박근혜 퇴진 민영화저지,  
 노동단압 분쇄 투쟁 본부회의  
 노조위원장 참여

## 제6기 임원선거 합동 연설회 (14,04,29)

오전10시, 오후3시30분  
 조합원 참여

## 노동조합 제 6 기 임원선거 조합원 총투표 (14,04,30)

승무 휴게실  
 04시00분~14시00분 까지  
 조합원 참여

## 제 124주년 세계 노동절 충북 노동자대회 (14,05,01)

청주 체육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참여

## 최저임금 정치 세종청사 결의대회 (14,05,05)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참여



## 노동조합 소식지(마중물15호)현장 배포 (14,05,19)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참여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14,05,23)

성안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 제5차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운영위원 및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 (14,05,21)

박근혜 퇴진 민영화저지,  
 노동단압 분쇄 투쟁 본부회의  
 노조위원장 참여

## 공채 26기생 노동조합 가입 (14,06,01)

노동조합 간부 참여

## 정 식품 노동조합 천막농성 지자방문 (14,06,09)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참여

## 정 식품 노동조합 결의대회 (14,06,19)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참여

## 제6차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운영위원 및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 (14,06,25)

박근혜 퇴진, 민영화저지,  
 노동단압 분쇄 투쟁 본부회의  
 노조위원장 참여

## 노동조합 상반기 회계감사 (14,06,30)

노조 회계감사 참여





## Find the Difference 6

20th Summer  
틀림그림 찾기

회사의 주요정책 심의 단위인  
자주관리위원회에서  
제4차 자주관리위를 마치고 산행을  
하며 자주관리기업의 발전을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 4월 10일  
자주관리위원 산행

위 아래의 사진을 보고 틀린 부분  
(6군데를 (○)하여 응모해주세요.  
당첨자는 우진교통에서 제작한  
교통카드(10,000원 충전)를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384 가길4  
우진교통 자주관리실



### 퍼즐당첨자 명단

제19호 틀림그림 찾기 당첨자입니다.  
당첨된 분께는 우진교통에서 제작한  
충전된 교통카드를 배송해 드립니다.

이현순 (홍덕구 경신로9)  
김영미 (홍덕구 옥산면)  
김민희 (홍덕구 분평동)  
유정미 (상당구 용암동)  
이건용 (상당구 내덕2동)  
장시목 (상당구 용암동)



2014. 4 ~ 2014. 6

우진의 희노애락

## 喜怒哀樂

### 조의를 표합니다

김주희 부친상 (14.04.01) 최은규 빙부상 (14.04.01)  
임경빈 빙부상 (14.05.08) 노재원 빙모상 (14.05.28)  
나상호 모친상 (14.06.06) 정창호 빙모상 (14.01.31)  
이내식 본인상 (14.07.15)

### 축하합니다

최병근 본인화갑 (14.04.05)  
김영래A 자녀결혼 (14.04.06)  
이종근 본인화갑 (14.04.25)  
한흥석 자녀결혼 (14.05.04)  
김현길 자녀결혼 (14.05.25)  
이준신 자녀결혼 (14.06.29)

### 수상 및 포상

•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 / 오영숙 (14.05.17)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오며,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가장 신뢰받는 회사로  
늘 자리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384 가길4  
TEL. 043-297-4011 FAX. 043-297-4010  
www.wjbus.co.kr